

## 청년이 위험하다, 청년 4고(苦)

### 목차

- I. 청년의 이행기적 특성
- II. 청년 4고 및 지원현황
- III. 정책 제언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청년은 생애주기 전환의 위기 직면

#### ▶ 청년은 현실에 대처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행기'

- 일반적으로 19~24세는 학업을 통한 취업 준비, 25~29세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 30~34세는 결혼·독립이라는 과업을 수행
- 그러나 학업-직업의 연계가 파괴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경제적 위기, 주거 불안 및 정신건강의 위험은 가중
- 전환기의 위험 증가는 청년기 이후의 생애주기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위험도는 점차 심화

#### ▶ 현 사회의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발생한 노인문제인 '노인의 4고(四苦)'에 비견한 청년 4품로 칭할 만한 수준

### 청년 4품: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 ▶ 청년은 자산이 적고, 일을 통한 소득이 생활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노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

- 최근 청년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성 등 사회경제적 조건 악화
-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가계대출 규모와 제2금융권 대출금액 증가

#### ▶ 청년 1인가구는 증가추세며, 이들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6%

- 청년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요구

#### ▶ 청년의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 사회관계 단절의 고립·은둔 증가

- 2017~2021년 동안 20대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22.8%, 30대는 연평균 13.7% 증가
-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로 추산(24만4천 명 규모)

### 정책 제언

-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지원(임시소득 지원, 청년 공유주택, 정신건강 지원, 고립 청년 사회관계회복 지원) ▶가장 위험도가 높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제도 정비를 통한 청년 지원의 실효성 증진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 I. 청년의 이행 기적 특성

불확실한 미래와  
생애주기로의 이행  
지연으로 청년의 우울,  
고립, 자살 등 삶의  
위험 증가

청년은 생애주기 상 독립 및 성인기로의 이행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으나, 이들이 처한 경제사회적 환경은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증가

- ▶ ‘청년1)’은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며, 생애주기적으로는 현실에 대처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행기’의 특성을 지님
  - 일반적으로 19~24세는 학업을 통한 취업 준비, 25~29세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 30~34세는 결혼·독립이라는 과업을 수행
  - 청년은 교육 후 취업 등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취업 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이후 표준화된 생애주기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음
- ▶ 학업-직업의 연계가 파괴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취업 지연, 고용의 불안전성 등은 경제적 취약 및 삶의 기반 약화로 이어짐
  -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취업 후에는 결혼, 내 집 마련의 순서를 거치며 생애주기에 맞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현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공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sup>2)</sup>
  -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등 취업경쟁력을 위한 비용은 학자금 대출 등의 빚으로 남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 계약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
- ▶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가구를 독립한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생애주기로의 이행 지연은 청년의 우울, 고립, 자살 등 삶의 위험성을 증가
  - 최근 코로나19는 불안정한 삶의 위험성을 높인 기폭제가 되어,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인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생계위기, 고립,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
  - 2021년 5월, KBS는 “시사직격: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 2022년 3월, “시사기획 창: 은둔형 외톨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 은둔형 외톨이, 청년 고독사, 사회적 고립청년을 주제로 다루기도 함
  - 이전의 청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계층으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청년은 고비용으로 인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세대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적 위기 및 주거 불안 정신건강의 위험 등 청년의 이행기, 전환기의 위험 증가는 청년기 이후의 생애주기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위험도는 점차 심화
- ▶ 현재의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 급격한 사회변동과 인구변화로 발생한 노인 문제인 ‘노인의 4고(四苦)’와 비견한 청년 4품로 칭할 만한 수준
  - 청년의 4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품, 범죄 노출 위험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는 (주거)안전품, 우울 등 정신건강의 고통을 겪는 병품, 사회관계 단절 및

1) 청년의 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름

2) 김승연(2018).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지원 정책”, 『월간 공공정책』, 148: 68-70.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청년정책은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포괄하기 어려움

사회구성원의 위상 포기의 고립화로 구분

- 그러나 4고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주거, 우울, 고립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함

## 청년이 직면한 위험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체계 내 청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청년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 1990년대 후반,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었고, 2010년 이후 고용, 주거, 건강, 사회관계, 참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
  - 2010년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청년정책은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독립 기반 마련 등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아우르는 등 청년을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sup>3)</sup>
  - 경기도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일자리 영역, 주거 영역, 교육 영역, 복지·문화 영역, 참여 권리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49개 사업 5,04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sup>4)</sup>
- ▶ 청년정책은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다수를 차지
  - 중앙정부는 23년 전체 390개 세부사업 중 146개 사업(37.4%), 경기도는 전체 49개 사업 중 14개 사업(28.6%)이 일자리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비해 일자리 정책 집중도는 낮은 편이나, 주거,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요구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함

〈표 1〉 중앙정부, 경기도 청년정책의 영역별 현황

구분	일자리 영역	주거영역	교육 영역	복지문화 영역	참여권리 영역	총계
중앙정부	146(37.4%)	30(7.7%)	122(31.3%)	47(12.1%)	45(11.5%)	390(100%)
경기도	14(28.6%)	4(8.2%)	9(18.4%)	14(28.6%)	8(16.3%)	49(10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경기도(2023).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 ▶ 청년정책의 포용성 및 다양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은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처한 어려움을 4품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정책 지원 수준을 검토,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최조순(202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분석", 『인문사회21』 14(3): 1-16.

4) 청년포털(2023). 「2023년 중앙부처 지자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74](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74)

청년은 불안정한  
고용과 부채 증가 등  
경제적 위험에 직면

### 청년 1품 : 빈핍 - 경제적 어려움

- ▶ 최근 청년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성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악화
  - (경제활동) 2023년 5월, 15~64세 실업률은 2.7%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5.8%<sup>5)</sup>
    - 전체 고용률은 69.9%로 전월동월대비 0.7%p 상승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6%로 전월동월대비 0.2%p 하락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월동월대비 9만9천 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
  - (근무유형) 청년층 취업자 중 첫 일자리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은 2012년의 12%에서 2021년 20%로 증가<sup>6)</sup>
    - 첫 일자리 중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은 2020년 41.9%에서 2021년 47.1%로 높아짐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플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3년 4월 기준, 363만5652 명으로, 전년 동월(375만4789 명) 대비 11만9137 명 감소<sup>7)</sup>
  - (종사상지위)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 결과<sup>8)</sup> 도출된 청년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 60.3%, 임시직, 19.2%, 일용직 7.5% 순
  - (임금 및 근속기간)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에서는 청년(19~34세)들은 세전 월평균 252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2년6개월, 1년 미만 근속기간의 비율은 32.7%<sup>9)</sup>으로 나타남
  - 청년층 취업자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의 질 역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 청년의 경제적 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
  - 2020년 기준, 가구형태별 균등화 소득을 비교해보면, 청년부부(261.2만 원), 부모동거(248.3만 원), 청년 1인(205.9만 원), 기타 동거가구가 189.7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청년 1인가구 중 저소득가구 비중은 75.1%로 청년 1인가구의 많은 수가 저소득가구에 해당<sup>10)</sup>
- ▶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의 가계대출 규모 및 대출금액도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금액도 증가
  -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대 다중채무자는 2019년 12월 말 30만3천 명에서 2021년 12월 말 36만 9천 명으로 22% 증가했고,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15조5,763억 원에서 23조525억 원으로 48% 증가<sup>11)</sup>

5) 통계청(2023). 『2023년 5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3.6.14.).

6) 안수지(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7) 김희재의원실(2023). 『청년일자리\_질까지 무너진다... '플타임취업자' 12만명감소』. 보도자료(2023.5.22.).

8) 경기도에 거주 만19~34세 청년 5,000명 대상으로 2021.12월~2023년 1월 동안 일자리, 주거/교통, 경제생활 등의 실태를 조사

9) 정세정 외(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박미선-조윤지(2022). 『청년가구의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연구원.

11) 진선미의원실(2022). 『20대 가계대출 95조 달해...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늘어』. 보도자료(2022.5.8.)

## II. 청년 4품 및 지원현황

청년이 위험하다, 청년 4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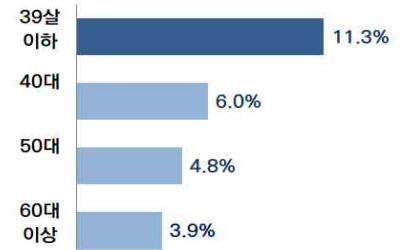
일자리창출 등의  
고용안정 정책은  
청년정책의 시작점이자  
주된 관심사

- 동 기간 전체 연령대의 다중채무자 수는 5%, 대출금액이 15% 증가한 것에 비교했을 때 전체 연령대의 다중채무자에 비해 20대 다중채무자의 수는 4.4배, 대출금액은 3.2배가량 증가

▶ 자산과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부채 급증은  
위기에 놓인 청년층 비율을 증가시킴

- 2021년 3월 기준,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임계수준초과채주(채무자)' 비율은 20~30대가 11.3%로 평균 6.3%보다 1.8배 이상 높음
-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20~30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

〈그림 1〉 연령대별 '임계수준초과채주 비율' (단위 : %)



자료: 진선미의원실 보도자료(2022.5.8.) 재구성.

▶ 청년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산이 별로 없고, 일을 통한 소득이 생활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노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

### 청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대 근로환경 개선 등은 정책적 관심이 큰 영역

▶ 2023년 기준, 중앙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146개 과제(37.4%), 예산 58,344억원(23.0%)을 배정

- (일자리 확대·역량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촉진, 취업역량 제고, 재직자 지속 지원 등
- (창업활동 활성화·내실화) 창업 전주기 지원 강화,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노동권의 보장)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청년 노동권의 보장

▶ 청년 대상 금융지원은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청년 부채부담 경감 정책 추진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 청년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저금리(3.6%~4.5%)로 대출 공급하는 햇살론유스 지속 지원
- 금융채무를 연체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 제공

▶ 경기도는 일자리분야에 14개 사업(28.6%), 예산 1,234억 원을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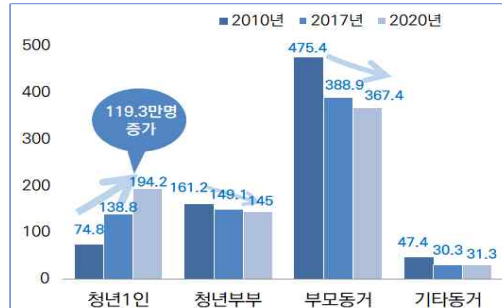
- 일자리분야의 대표사업은 신규사업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이며, 사업내용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수적인 어학시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
- 청년면접수당,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등 추진

청년가구 중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며 이들의 상당수는 주거취약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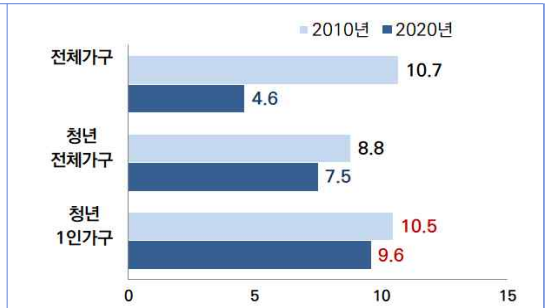
### 청년 2품 : 주거 안전품 -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 ▶ 청년의 주거여건은 가구구성 유형별 차이가 크고, 그중 1인가구가 가장 취약
  - 2020년 기준, 청년가구의 가구구성 유형은 부모동거 367.4만 가구(49.8%), 청년1인 194.2만가구(26.3%), 청년부부 145만가구(19.7%), 기타 동거 31.3만 가구(4.2%) 순<sup>12)</sup>
    - 청년 1인가구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2010년 74.8만 가구에서 2020년 194.2만 가구로 10년간 119.3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청년가구 중 1인가구는 61.6%를 차지
  - 청년가구의 자가비율은 16.1%로 전체가구(57.9%)에 비해 낮고, 전세·월세 비율 78.0%
    - 청년 부부가구는 자가(42.3%) 및 전세(37.0%), 부모동거 청년가구는 자가(75.1.0%)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청년 1인가구는 보증부 월세 59.4%, 순수월세 8.2%로 월세 비중이 매우 높음
- ▶ 청년가구는 주거형태에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13.4%)이 높고, 주거수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7.5%에 달함
  - 전체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20년 기준 4.6%인 반면, 청년 1인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6%로 2배 수준

〈그림 2〉 청년가구유형 규모 변화



〈그림 3〉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 경기도 단위에서 보면, 청년 1인가구는 타 연령층, 경기도 전체 1인가구에 비해 월세 대비 보증금 상쇄율<sup>13)</sup>이 낮고, 주거면적도 낮아 주거 취약성이 높음<sup>14)</sup>
  - 주거비 부담(RIR)<sup>15)</sup>은 청년층이 가장 높고,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은 7.0% 수준

〈표 2〉 연령대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수준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보증금	평균 월 임대료	월세 대비 보증금 상쇄율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주거비 과부담 가구
경기도 1인가구	2,455	33.8	72.6	22.3	6.4
청년층 가구	<b>1,850</b>	<b>35.8</b>	<b>51.6</b>	<b>25</b>	<b>7</b>
중장년층 가구	2,849	33.6	84.8	20.1	6.1
노년층 가구	4,175	20.4	204.7	11.9	0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원자료.

12) 박미선·조윤지(2022),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연구원.

13) 월 임대료 미지급시 보증금을 통해 최대 보장되는 임차기간을 상쇄율(기간)으로 산출

14) 최조순·이주영(2022), 『경기도 1인가구 주거 관철은가?』,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4.

15) RIR(Rent to Income)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며, RIR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해당



## II. 청년 4품 및 지원현황

청년이 위험하다, 청년 4품

청년들은 주거지원  
요구가 가장 높으며,  
관련 정책은 주택공급,  
주거환경 개선,  
월세지원 등

-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면적도 1인가구 전체 주거면적의 79% 수준에 그치고 있음<sup>16)</sup>
- 독립하는 청년이 증가하였지만, 사회 및 경제 활동의 초입단계에 해당하여 경제적 자립 여건이 안정화되지 않고, 자산형성도 충분하지 않아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
- ▶ 청년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 요구는 청년의 주거 불안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
-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 결과,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37.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청년이 직면한 주거 불안은 현재의 심리적 고통과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sup>17)</sup>

###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 및 금융지원, 지방정부는 보조적 지원

- ▶ 청년에 대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은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 ‘23년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5.3만호와 청년층 공적임대주택 6.0만호 공급 계획
-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주택을 분양하는 것이며, 공적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중위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청년에게 기존 주택을 임대
-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1.3만가구)하며,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23년 13.7만명)
-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할인, 전·월세자금 보증 지원 등
- 주거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보증금(50만 원), 이사비·생필품(40만 원) 지원 등
- ▶ 경기도 청년대상 주거정책은 4개 사업, 예산 299억6백만 원으로 사업수는 청년정책의 8.1%, 예산은 5.9%를 차지
-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공공기숙사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지원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4만8백 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추진

16) 최조순·이주영(2022). 『경기도 1인가구 주거 관철은가?』,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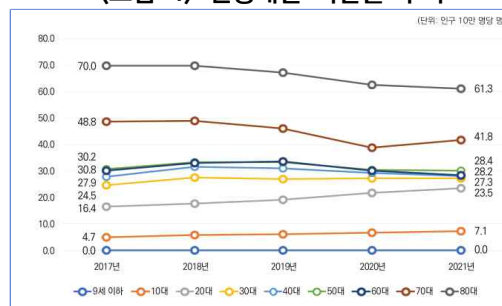
17) 김강산(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16호. 국회입법조사처.

20~30대 우울증 환자, 자살률이 증가추세이며 20대의 자살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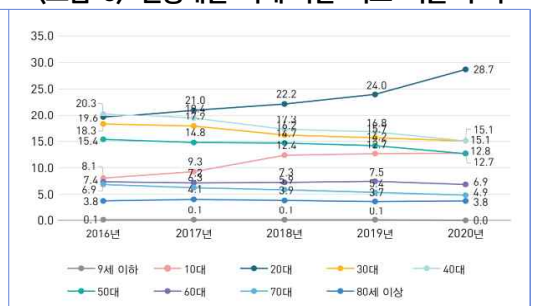
### 청년 3품 : 병품 - 정신건강 악화

- ▶ 우울증 환자수 통계<sup>18)</sup>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는 20대에서 127.1%(연평균 22.8%), 30대 67.3%(연평균 13.7%)로 대폭 증가
  - 2017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12만 9,3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20대 환자가 전체의 19.0%(17만 7,166명)로 가장 많음
  - 성별 우울증 환자수는 여성이 63만 334명으로 남성 30만 3,147명의 2.1배정도 많은데, 남성은 20대(6만112명), 30대(4만6,473명), 40대(4만5,898명) 순으로 많고, 여성은 20대(11만7,054명), 60대(10만4,533명), 30대(9만3,797명) 순임
- ▶ 우리나라 자살률은 26.0명이며, 10~30대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2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0대(44%), 20대(57%), 30대(41%)에서 사망원인 1위이고, 40대(21%), 50대에서 2위(10%), 60대에서 4위(4%)
  - 연령대별 자살사망자 수는 50대가 가장 많고, 자살률은 80세 이상(61.8명)으로 가장 높으나, 연령대별 자살률 증가율은 10대가 전년 대비 10.1% 증가, 20대 8.5% 증가 하여 10대와 20대 자살률은 5년 연속 증가
- ▶ 자살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살동기로 작용<sup>19)</sup>
  - 주요 자살 동기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순
  - 21~3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남녀 문제 순으로 높았고, 특히 남녀 문제와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31~4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생활 문제(35.7%)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2020년 응급실로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34,905건, 20대가 가장 많음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007건(28.7%)으로 가장 많고, 40대 5,279건(15.1%), 30대 5,272건(15.1%), 10대 4,459건(12.8%) 순

〈그림 4〉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그림 5〉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비율 추이



자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2). 국내외 자살현황분석.

자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2). 2022 자살예방 백서.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보도자료(2023.6).

19)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2). 『2022 자살예방 백서』.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은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심리상담이  
대부분

- ▶ 청년층의 우울, 자살은 코로나 19 이후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를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업 등 만으로 연관짓기 보다 기회의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부정적 미래인식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함<sup>20)</sup>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낮은 사회 신뢰도는 무기력, 우울, 비관적 시각 등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높은 영향을 끼침<sup>21)</sup>
  - 인권위는 지난 1월,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권고하며, 청년 정신건강 악화 이유로 ▲능력주의,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 완수라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지목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8개국 40세 미만 여성의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로, 해당 연령대 한국여성의 자살률 증가를 가사노동과 육아, 맞벌이, 직장 내 차별 등 모순적인 기대 강요를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중앙정부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을 바우처사업으로 운영, 경기도는 정신과 외래진료비 등 지원

- ▶ 중앙정부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실시
  -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심리 문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은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10%(회당 6천원 또는 7천원)를 부담
- ▶ 경기도는 자살예방 등을 위한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 추진
  - 정신과 진찰료뿐만 아니라, 약제비·검사료 등의 비용을 1인당 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
  - 만 19~34세인 경기도민 중 5년 이내에 기분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등으로 초진을 받은 경우 가능
- ▶ 경기도 청년포털 내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운영
  - 대면 상담에 불편함이 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에서 또래상담가가 고민을 상담해주는 서비스 운영
- ▶ 경기도 청년공간을 활용한 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 중
  - 경기도 취업 청년에 특화하여 번아웃, 직장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7개 시군에서 추진

20) 이수비·신예람·윤명숙(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2): 369-389.

21) 박채림·한창근(2023). “사회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1): 141-156.

청년의 고립·은둔  
원인은 복합적이거나,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

### 청년 4품 : 고립품 - 사회관계 단절, 사회구성원의 위상 포기

- ▶ 청년재단(2020)은 기존에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용어에서 시작된 ‘은둔형 외톨이’를 ‘고립 청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20대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 생물학적으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연령에서 비교적 초반기에 해당하는 20대 이후의 사람이 심리·경제적 독립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
- ▶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로, 20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 19~34세 인구 추산 24만4천명 규모<sup>22)</sup>
  - 서울시가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는 청년의 밀집성이 반영되어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비율을 4.5%로 추정
- ▶ 고립·은둔의 이유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은둔 이유를 취업 어려움 35.0%, 대인관계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로 제시
  - 서울시 조사의 고립·은둔생활 계기는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45.5%)(중복응답), ‘심리적·정신적 어려움’(40.9%),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움’(40.3%) 순
  -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는 가족, 또래 또는 학교/직장 기반의 사회적 관계, 진로 및 취업, 노동시장의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의 은둔, 고립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자 현상’<sup>23)</sup>
    - 청년들은 가족, 학교, 진로, 사회 등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삶의 사건이나 부정적 노동시장 경험으로 인해 니트상태가 되며, 은둔생활로 이어짐
- ▶ 사회적 고립은 우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과 안녕감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sup>24)</sup>
  -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고독감, 빈곤, 사망률증가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높음<sup>25)</sup>
  -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더라도 정서적 고립 집단의 자살 충동률이 일반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구직 의욕 상실이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정서적 고립의 위험, 심각성 존재<sup>26)</sup>

22) 국무조정실(2023).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3. 03.06.).

23) KBS(2022.3.29.). “시사기획 창: 은둔형 외톨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24) 주소희·이경은(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45-64.

25) 김영범(2020).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행동 가능성: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21(3):169-190.

26) 최수현(2023). 『정서적 고립에 빠진 청년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통계 브리프.

지자체 별  
고립청년 관련  
조례제정 및  
실태조사 시행

- ▶ 고립·은둔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
  - 당사자는 외부와 물리적·사회적으로 단절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도 체면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 접근이 쉽지 않음
  - 그러나 고립·은둔 청년의 55.7%가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sup>27)</sup>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 방안이 필요
    - 고립·은둔 청년의 43.0%는 실제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으며, 활동은 '취미활동'(31.1%), '일이나 공부'(22.0%), '병원 진단·치료'(15.4%), '심리상담'(10.2%)이라 응답
    -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57.2%), '취미·운동 등의 활동'(44.7%), '일자리나 공부 기회'(42.0%), '심리상담'(36.8%) 등

###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 대표적

- ▶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이어짐
  - 현재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6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도 함

〈표 3〉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 조례	(총 5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총 11개) 고양시, 광주 남구, 광주 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은평구, 서울 중랑구, 안동시,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고립청년 관련 지원 조례	(총 3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총 8개) 나주시,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양천구, 원주시, 인천 부평구, 청주시, 태백시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6. 11. 기준

- 경기도는 6월 현재,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
  - 해당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5년) 실시, 자립 및 평생교육 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이 담김
- ▶ 경기도는 2022년 공모사업을 통해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
  - 부천시와 고양시의 은둔·니트 청년과 해당 부모 94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부모아카데미, 쉼터제공, 지역공방·직업체험, 집단상담 등을 진행

27) 서울특별시(2023).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지원 및 조례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향상 필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지원 강화

- ▶ 가능성의 시대가 아닌 버텨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 (경제적 지원) 참여소득에 기반한 청년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임시소득 지원
  - (주거 지원) 경기도형 청년 공유주택, 주택바우처 등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거 안정성 향상 및 주거부담 완화
  - (정신건강 지원) 청년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이 용이한 청년공간을 기반으로 상담사업 및 비대면 상담 확대 필요
  - (고립청년 지원) 시범사업 시 만족도가 높았던 고립청년이 이용가능한 쉼터 제공과 도래 멘토와 함께한 공방 체험 등을 확대 추진하여 청년의 사회관계 복구

#### 가장 위험도가 높은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정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위험 뿐만 아니라 주거, 정신건강, 고립 등 복합적 욕구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책 마련 시 1인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발굴 및 확대

#### 제도 정비를 통한 청년 지원의 실효성 증진

- ▶ 경기도청년기본조례와 각 사업별 조례 간 정합성 및 연계성 보완
  - 경기도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위한 포괄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별 조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례 간 관계 조정 필요
  -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기본계획 등의 관계도 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높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 ▶ 현재 제정 중인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의 고립청년의 범위 확대 등 보완
  - 발의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립청년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제2조) 정의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물리적 고립인 상태로만 정의하고 있어, 정서적 고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가 필요